

보도 일시	2021. 10. 12.(화) 09:00	배포 일시	2021. 10. 12.(화) 09:00
담당 부서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책임자	과장 김혜수 (044-203-3241)
		담당자	주무관 이숙은 (044-203-3248)

## 한국 책, 14개국에서 해외 독자들과의 거리를 좁힌다

- 재외 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과 협력해 현지 맞춤형 한국 책 홍보행사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신현수, 이하 출판진흥원)과 함께 한국 책(케이북)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영국, 일본, 스페인, 벨기에 등 14개국의 재외 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과 손을 잡고 현지 독자 맞춤형으로 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대면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독자들이 한국 책을 더욱 가까이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 한글날을 전후로 영국, 스웨덴, 인도네시아 등에서 한국 책 행사 개최

한글날을 전후로 영국, 스웨덴, 인도네시아 등에서 한국 책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주영국한국문화원(원장 이정우)에서는 10월 한 달 동안 런던의 중심부 소호(Soho)에 있는 포일즈(Foyles) 서점\*에서 ‘한국 문화의 달’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 웹툰과 영화 관련 도서 등 다양한 도서를 전시하고 한글날에는 한글 멋글씨(캘리그래피) 행사를 개최해 한국 도서와 한글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1903년에 문을 연 유서 깊은 런던의 대표 서점으로 차링크로스 본점(37,000㎡)에는 책 20여만 권과 문구, 음반과 카페, 공연장이 있으며, 하루 3천~4천 명이 방문함.

주스웨덴한국대사관(대사 하태역)에서는 9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국 그림책\*을 소개하는 영상전시 ‘아이들을 위한 예술’을 개최하고 있다. 그림과 문자, 영상, 소리를 융합한 이번 전시는 그림책의 보편적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국적 정서도 소개해 스웨덴 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2020년 백희나 작가의 린드그렌상\*\* 수상으로 스웨덴 내의 높아진 한국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이번 전시로 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 <노란우산(이재수)>, <수영장(이지현)>, <여름이 온다(이수지)>, <먼지아이(정유미)>, <알사탕(백희나)> 등 총 5편 전시(국어, 영어, 스웨덴어판)

\*\* 2002년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사후 그의 문학적 업적을 기려 그해 가장 뛰어난 성취를 이룬 작품에 수여하는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상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원장 김용운)은 10월 초에 ‘한류, 한국도서를 말하다(Hallyu : Speaks K-Book)’ 행사를 열어 현지에서 번역, 소개된 한국도서를 전시하고 한국 책표지 디자인 기법과 시연 특강을 진행했다.

### 국가별 현지 맞춤형 한국 책 행사로 출판한류 기반 확산

지난 7~9월 중에는 홍콩, 스페인, 일본(오사카), 중국(베이징) 주재 한국 문화원에서 현지 독자 맞춤형 행사를 개최해 큰 인기를 모았다.

▲ 주홍콩한국문화원(원장 이영호)은 지난 7월에 열린 ‘홍콩북페어’에서 한국 그림책을 전시했다. ▲ 주스페인한국문화원(원장 오지훈)은 스페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책 전문 유튜브 창작자와 함께 매달 한국 전래동화와 그림책을 동화구연으로 소개했으며, 지난 8월에는 그림책 <파란 파도(유준재)>와 전래동화 <요술 향아리>로 인형극을 공연했다. ▲ 일본 오사카한국문화원(원장 정태구)은 지난 9월 일본에서 출간되어 인기를 모은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의 김하나, 황선우 작가와 함께 한국의 책 전문 유튜브 창작자 김겨울, 일본의 서평가 에나미 아미코가 온라인 작가 행사를 진행했다. ▲ 주중국한국문화원(원장 김진곤)은 중국 웹툰 온라인시장(플랫폼)인 콰이칸(快看)에 소개되고 있는 한국 웹툰 <그대를 사랑합니다(강풀)>, <수평선(정지훈)>, <좋아하면 울리는(천계영)> 등을 중국 영향력자(인플루언서)를 통해 소개해 한국 웹툰의 열기를 이어갔다.

##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지역별 다채로운 한국 책 행사 개최

11월에도 국가별로 다채로운 한국 책 행사가 이어진다. ▲ 주베트남한국문화원(원장 석진영)은 11월 중에 <마당을 나온 암탉(황선미)>,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김난도)>의 저자와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하고, ▲ 주터키한국문화원(원장 박기홍)은 11월 1일부터 6일까지 한국 문학주간 ‘케이(K)-문학 세계화’ 행사를 통해 현지 독자들과 만난다.

▲ 올해 한국과 수교 120주년을 맞는 주벨기에한국문화원(원장 김재환)은 현지인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한국 책을 접할 수 있도록 11월~12월 중에 브뤼셀, 안트워프 지역의 서점 20여 곳에서 한국도서 독립공간을 마련해 한국 책을 전시하고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강연을 펼친다. ▲ 호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원장 김지희)은 호주의 대표 서점인 베르켈로우 혼스비 서점과 협력해 10월 말에 한국문학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한국문학에 대한 저변을 넓혀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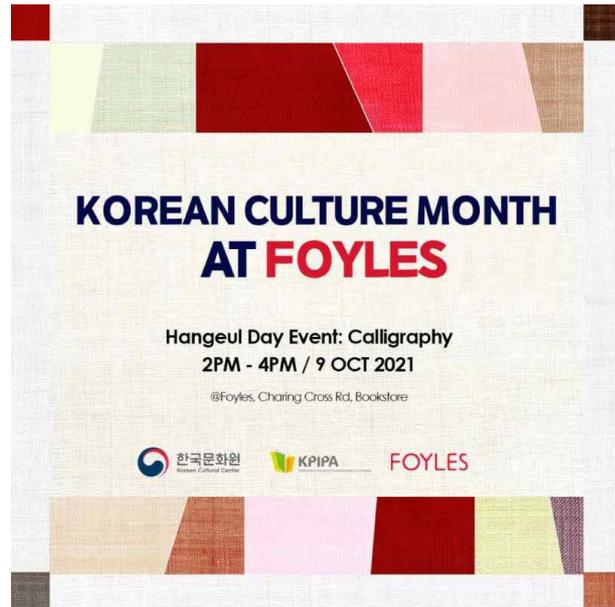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한국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기획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주나이지리아한국문화원(원장 이진수)은 11월 중 아부자대학에 ‘한국 책 특별전’을 열어 한국 드라마의 원작이 된 만화와 소설을 전시할 예정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한국문화원 개원 시기에 맞춰 ‘세계에서 인정받은 한국 그림책’ 전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K)-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해외 진출의 창구가 필요해진 만큼 재외한국문화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앞으로도 해외 진출의 중심인 한국문화원과 협력해 한국 책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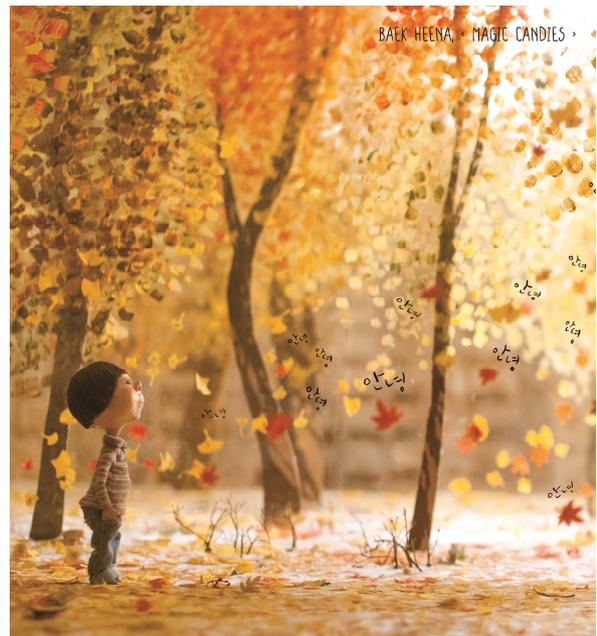
- 붙임 1. 재외한국문화원 한국 책(K-Book) 홍보 행사 목록
- 2. 재외한국문화원 한국 책(K-Book) 홍보 행사 포스터, 사진



권역	국가	행사내용	일정
아시아 (6개국)	홍콩	홍콩 북페어 한국관 참가, 그림책 전시 및 홍보	7. 14.~20.
	일본(오사카)	‘한국 문학의 달: 한국문학 토크 이벤트’ -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작가 이벤트	9. 5.
	중국(베이징)	중국 인플루언서를 통한 K-웹툰 및 한국 출판물 홍보	9월
	인도네시아	‘한류, 한국도서를 말하다(Hallyu: Speaks K-Book)’	10. 8.~10.
	베트남	한국 작가와의 만남(온라인)	11월
	터키	터키 한국문학 주간(K-문학 세계화) - <마당을 나온 암탉> 애니메이션 상영회, 작가 행사	11. 1.~6.
아프리카 (2개국)	나이지리아	아부자대학 내 K-Book 특별전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문화원 개원 기념, 한국 그림책 전시회	11. 24~12. 31.
CIS (1개국)	러시아	한국도서 전시회	미정
유럽 (4개국)	스페인	스페인 유튜버의 한국 동화구연 영상 제작 지원 인형극 공연	매달, 8~9월
	스웨덴	‘아이들을 위한 예술’ 한국 그림책 영상전	9. 14.~10. 14.
	영국	런던 포일즈 서점 내 한국도서 전시 및 ‘한국 문화의 달	10월
	벨기에	벨기에(브뤼셀, 안트워프) 서점(20여 곳)에서 한국도서 독립코너 개설 및 한국문학 소개 강연	11~12월
오세아니아 (1개국)	호주	호주 베르켈로우 혼스비 서점 연계, 한국문학 행사 (Korean Literature Week)	10. 28. '22년 1월



영국 '한국 문화의 달(Korean Culture Month At Foyles)' 행사 포스터



스웨덴 '아이들을 위한 예술' 한국 그림책 영상전 포스터



스페인 한국 동화 인형극 공연 개최 모습  
※ 위 사진 사용 시 저작권 표시 필수  
[@LuOsAgenciaCreativa](https://www.instagram.com/LuOsAgenciaCreativa)



일본 오사카 한국문화원 '한국문학 토크 이벤트' 유튜브 라이브 행사 모습